

신규채용자 교육부터 안전기초 다져

(주)한진중공업 대전도시철도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대전은 지하철 공사로 한창이다. 서울, 인천, 부산·대구에 이어 지하철 노선이 있는 도시로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대전에서 지하철 운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종합사령실을 건립하고 있는 곳이 있다.

대지면적 8,403평, 연면적 5,362평의 대전지하철 종합사령실 건립공사(주)한진중공업 최영욱 소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2004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는 곳이다.

『최첨단 기술로 운행될 대전 지하철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할 이 곳 현장을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을 생산하는데에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그 중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최영욱 소장은 대전 지하철의 중추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준공 그날까지 재해없는 안전한 시공을 할 것이며, 준공 후에도 대전지하철을 무재해의 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안전교육은 신규채용부터 철저

안전의 기본은 안전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곳은 아침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체조, 작업시작전 위험요소 숙지 및 안전작업순서 숙지라는 순서가 근로자들을 맞이한다.

특히 최근 3D기피현상과 더불어 고령화 추세에 인력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유동인력이 많아지고, 고령자와 저기능자의 현장투입이 불가피함에 있어 현장안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 곳 현장에서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철저하다. 신규채용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장투입 자체를 시키지 않는다.

평소 “안전”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최영욱 소장은 현장게시 전부터 전 직원을 건설안전 체험학습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수케한 후 공사를 게시할 정도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특별하다.

안전 시공법 도입으로 안전확보

김주복 안전관리자는 타워크레인 설치와 기초 구조물 시공시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고 회상한다.

현장 옆은 독을 사이에 두고 천(川)이 흐르고, 같은 수위의 지하수가 있다. 그렇다 보니 땅을 굴착하게 되면 많은 지하수가 유입되어 토사붕괴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 최영욱 소장

있다.이 상태에서의 굴착공사또는타워크레인 설치및 구조물 건립은 상당한 위험성을가지고있다.

따라서 이 현장에서는시트파일 공법과 차수 공법 등으로 현장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완전 차단함으로써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차단하고,지하수에 의한구조물의부력 위험에 대해서는 Ink 앵커 공법으로 건축구조물을지면에 고정시킴으로써 안전성을확보하였다.

또한 지하 2층의 층고가 6m 상부의 거푸집 동바리 작업에 대해서는 2단 수평 연결재로 묶어 안전시공을 하는 등 안전한 시공법 선택으로 근본적인 안전을 확보한다.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동절기에는 현장에서 화기사용이 많아진다. 특히 추위를 견디기 위한 화기 사용은 화재와 더불어 좁은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을 피우는 장소를 지정하고, 주변의 환



경을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데 힘쓰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보온의 휴게실을 설치하여 작업자를 보호하고있다.

또한 겨울철에는바람을 피해 공간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있다.

그렇기에 그 어느때보다 현장 순찰이 요구되는 계절이다.

그래서 더욱 조직적인 현장 순찰을 통해 작은 불씨 하나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다.

또한,만약에 일어날수있을 화재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소화기의 사용방법 및 실습에 관한교육을시키고있으며,가상의상황을설정하여 초기진화훈련을 실시한다.

겨울하면 매서운 기온과 함께 폭설은 재산상 손실을 준다.따라서 이 현장에서는 폭설에 대비해 현장 곳곳에 재설도구들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폭설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장비를 갖추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응급조치체제까지 갖추고있다.

자율안전을 유도하는 안전활동

유동인력이 많은 관계로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계몽으로의 안전활동의 효과는 크지 못하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안전활동제도를 많이 활용한다.

그중 하나가 “1일 안전당번제 실시”이다.

매월 1일, 15일은 현장 근로자를 일일 안전당번으로 선임하여 안전업무를 수행케 한다. 이는 개개인이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함께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것은 안전당번이 현장의 위험요소를 지적하면 협력업체와 안전보조원 등이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확인 받은 시스템이다.

이 밖에 매월 정기교육시에 우수근로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이다.

다각적인 안전 활동 전개

매주 토요일은 협력업체 소장, 반장이 모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때 발견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한다. 또한 기간이 요구되는 조치사항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조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을 주간 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 이 때 발생한 모든 사항은 매 주 현장 소장에게 보고된다.

이 밖에 모든 개구부에 있어서 철저한 안전망과 추락방지망은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며,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엄중 조치를 한다.

「추후 무재해 현장과 더불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현장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와 작업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주복 안전관리자는 평소에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보건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끝으로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 현장으로 지속되길 바라며, 계속적으로 대전 지하철의 무재해에 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